

“전북교육인권조례 졸속 추진, 사실 무관”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졸속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 인권단체가 ‘졸속적인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따른 것이다. 이날 도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현재까지 공청회 2회, 토론회 2회, 정책연구 1회, 교원단체협의회 1회, 전문가협의회 3회, 조례안 집중자문 5일, 본청 법무팀 및 교육부 법적 자문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내용을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했다. 먼저 교원의 권리를 교육인권조례에

도교육청,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 인권단체 주장 관련 “학생인권심의위 등 기능 통합, 시정기구 일원화 적합 반영”

담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교육인권조례’에는 ‘교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교원인 24조 제2항에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인권담당관에게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현장의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그 특성상 ‘학생인권 침해’와 병행해 ‘분쟁사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학교 교원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에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처리를 통한 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상담 및 조사를 인권담당관의 직무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내용을 삭제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고 했다.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권리 조항인 제2장 제1절부터 제7절까지 21개 조항은 현행 유지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센터, 인권옹호관 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심 의위원회 등은 기능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전북교육인권조례’에 통합 및 확대 반영하고 ‘학생인권조례’는 개정용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인권 침해 사안을 심의하는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기능 통합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일관성을 갖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정기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구성원, 교육단체, 관련 인권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도내 학교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지원을 위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 인권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의 교육인권조례안은 각 교육주체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자치규범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졸속적인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권리 보장에 나서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신입 교원 6명 임용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교육 및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입 교원 6명을 임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27일 대학 본관 2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신입 교원 임용장 수여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교무위원을 비롯해 신입 교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신규 임용된 교원은 △김산기(간호학과) △이형석(경찰행정학과) △박서윤(물리치료학과) △한주희(약학과) △김명호(한의학) △박미라(일반대학원 자동차공학과) 등 6명이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 현장점검 실시

33개 학교 대상... 자체 점검반 구성 9개교 대상 불시 점검 교육부 '2027년 무석면 달성' 대비 내년 조기 해소 완료 목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겨울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겨울방학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한 학교는 총 33개교로,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현장점검과 별도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9개교에 대한 불시 점검도 진행했다. 주요점검 사항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적정 여부 △감리 수행 적정 여부 △폐석면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모니터링 활동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매년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공사 특성상 방학기간에 집중돼 부실 우려가 있는 석면·해체 공사의 견실 공사를 유도하기 위해 6개월마다 위생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목표로 제시한 2027년 학교 무석면 달성을 계획에 비해 3년 가량 앞서 2024년에 석면 조기 해

소 원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세종을 제외하고 가장 우수한 석면 제거율로, 올 2월 기준 전체 학교 시설 면적 488만㎡(802교) 중 석면 보유 면적은 약 17만㎡로 연면적 대비 2.7%만 남는다. 여기에 올해 175억원을 확보해 약 8만3,000㎡의 석면을 제거하면 석면 보유 면적은 약 9만5,000㎡(연면적 대비 1.1%)로 2024년 학교 석면 제로화 달성이 가능해진다. 도교육청 김영주 시설과장 직무대리는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9년 시민단체 및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사·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 안전관리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석면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예산을 반영해 2024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 제로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7일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교원 퇴임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교육발전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

도교육청, 올 교원 퇴임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
황조근정훈장 31명 등 총 93명 정부포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7일 오후 2시 2층 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교원 퇴임 기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상 전수식에서 서거석 교육감이 직접 수상자 한 명 한 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전달하며 감사를 표했다. 특히 정년퇴임 교원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교육청 차

원의 포상 전수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포상 대상자는 총 93명이다. 이들은 이달 말 정년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도내 유·초·중등 교원으로, 학교 교육청 교육부의 엄정한 검증을 거쳐 공직생활을 훌륭히 수행한 공무요원으로 인정을 받아 포상을 받게 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창육천

유치원 조만녀 원장 외 30명은 황조근정훈장 △입암초등학교 최영옥 교장 외 23명은 훈조근정훈장 △군산서흥중학교 이영민 교사 외 12명은 녹조근정훈장 △고신중 신형교 교사 외 12명은 육조근정훈장 등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교육 발전에 헌신하며 명예롭게 퇴임하는 교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한의과대학 효사랑가족요양원과 협약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지난 24일 효사랑가족요양원 회의실에서 효사랑가족요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병용 한의과대학장과 김정연 효사랑가족요양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공동 연구 수행 및 학술·연구 정보 교류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학생 교류 및 실습 지원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공동 노력 △연구인력 교육·훈련 및 교류 등이다. 양 기관은 의료정보 제공 및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김덕원 교수 한혈유공훈장 금장 포장

전주비전대학교 김덕원 교수(응급구조학과)가 한혈유공훈장 금장 포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상은 대한적십자사가 한혈 50회 이상 실시한 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상이다. 김 교수는 “내 혈액이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늘 마음이 뿌듯함을 느낀다”며 “한혈은 응급수혈이 필요한 응급환자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한혈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LS엠트론 산학협력 협약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27일 농업기계 글로벌 제조사인 LS엠트론(주)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농업기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의 취업연계,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 및 실습기자재 지원, 능기계 직무향상을 위한 재직자 교육, 지속적인 사업 운영 및 성과 창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S엠트론(주) 권오석 기술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업기계 전문기술인력 부족 해소와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상모 총장은 “지역 농업산업 발전 정책에 맞춰 최첨단화되고 있는 농업기계 발전에 부합할 수 있는 현장 기술인력을 양성 공급은 물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UVC LED 소독공정 결합 고성능 하이브리드 고도정수처리 공정 개발

전북대 이재우 교수팀... 제1저자에 이우재 학부생 참여

전북대학교 고분자나노공학과 이재우 교수 연구팀과 생명공학부 조민 교수 연구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근 용존 유기물 정밀여과(NDOM MF)에 이은 UVC LED 소독공정이 결합된 고성능 하이브리드 고도정수처리 공정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연구 내용을 담은 논문은 수자원 분야 저명 국제학술지인 Water Research(피인용지수: 13.400, JCR: 상위 0.50%)에 게재되며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학부 4학년인 이우재 학생(고분자나노공학과)이 제1저자로 참여해 주목을 받고 있다. Water Research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국제 저명 저널에 학부생이 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미 개발된 하이브리드 정수처리 공정은 원수 내에 존재하는 상기 병원성 원생동물들을 백만분의 1(6 lg)에서 천만

분의 1(7 lg) 수준으로 배제 또는 불활성화 시키면서, 동시에 기존의 정밀여과공정 대비 52%-146%의 생산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1저자인 이우재 학생은 “학부 마지막 해에 이렇게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어 기쁘고 많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이재우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며 “석사과정 진학 이후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기존의 연구를 발전시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수인성 집단 발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병원성 원생동물인 ‘자이디아’와 ‘크립토스포디움’은 감염 시 복통, 설사, 영양분 흡수 장애를 일으키고 유아 및 기저질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 다이텍 섬유공학연구센터와 협약

전주대학교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는 지난 24일 다이텍연구원 섬유가상공학연구센터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그동안 섬유소재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가 다이텍연구원 섬유가상공학연구센터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생 실습기회 제공 △보유연구장비 공유 △공동 R&D 과제 발굴 및 수행 등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전주대학교에 입주하게 된 다이텍연구원의 섬유가상공학연구센터와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와의 우수한 연구 역량 및 자원을 공유해 더욱 효과적인 연구 수행 및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이뤄졌다. /정은성 기자



지난 13~24일 진행된 제1회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 집합교육.

전북대, 식물검역관·검사원 시험 집합교육

전북대학교 식물병역대학원(원장 백승우)이 지난 13~24일까지 2주간 제1회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자격 전형시험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식물검역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전북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게 됐다. 이번 집합교육은 전북대 바이오홀과 농업생명과학대학 3호관에서 진행됐으며, 모든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은 3월 8일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특히 2주 간의 교육에서는 수출입 검역에 관련된 수출입 식물 검역, 검역제도, 식물병해충 위험분석 및 소독, IMD 국경검사, 병해충 진단 방법 등 검역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론과 실습습득이 병행됐다. 이우재 교수는 “이번 집합교육을 계기로 전북대학교-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교육협력체계를 구축해 식물 수출입 식물검역 담당에게 부여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